

지리산 고로쇠 약수축제 개최

3월 3일 오전 10시 남원시 뱀사골 일원서



2018년 새봄을 맞이해 30번째 지리산 뱀사골 고로쇠 약수축제가 오는 3월 3일 오전 10시 남원시 신내면 뱀사골(반선 주차장)일원에서 개최된다.

2018년 새봄을 맞이해 30번째 지리산 뱀사골 고로쇠 약수축제가 오는 3월 3일 오전 10시 남원시 신내면 뱀사골(반선 주차장)일원에서 개최된다.

산내면 발전협의회(회장 박원국)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고로쇠 약수축제는 산내면 농약단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약수제 길놀이 행사와 약수제례, 난타공연, 기념식을 시작으로 고로쇠 약수 힐링 걷기대회, 즉석잡아 노래부르기, 연예인 초청 공연(박상봉, 도희, 한가희), 고로쇠 이벤트 및 체험(고로쇠 빨리먹기, 고로쇠 먹고 고향지르기, 고로쇠 인절미 만들기, 고로쇠식해 시음 체험), 경품추첨 등 다채로운 체험 행사 등이 펼쳐지며, 지역 먹거리장터와 농산물판매가 운영되고 또한, 저렴한 가격에 고로쇠 약수를 구입할 수 있는 할인 판매장도 운영된다.

특히 이번 축제는 관광객이 개인 컵을 가지고 행사장을 방문하면 몸에 좋은 고로쇠를 마음껏 마실 수 있도록 무제한 고로쇠 음수대를 마련하였고, 고로쇠떡국도 500그릇 한정 무료로 제공한다.

체험행사 중 고로쇠 약수 힐링 걷기대회(반선주차장에서 와운마을

천년송까지(왕복 5km/2시간 소요)는 참가자에게 제공되는 고로쇠(500ml)를 마시며 주변의 뛰어난 풍광을 즐길 수 있고 천연기념물 천년송 일대에서 이뤄지는 천년송 소원빌기 및 보물찾기도 참여하는 등 고로쇠의 깊은 맛과 지리산의 정취를 한껏 느낄 수 있다.

지리산 뱀사골과 달궁, 반야봉 등지에 군락을 이루고 있는 고로쇠나무에서 채취되는 고로쇠 약수는 지리적 특성상 해풍의 영향을 받지 않는데다 친환경 고산 지역에서 생산되어 최상품으로 평가 받고 있으며, 경칩을 전후하여 2월 말부터 4

월 초순까지 생산된다. 특히 타 지역 고로쇠보다 신경통, 위장병, 관절염, 변비에 이롭고 인체에 도움이 되는 많은 무기질 및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어 면역력 강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로쇠는 낮에 온도가 올라가면 줄기 속의 물과 공기가 팽창해, 밖으로 나오려고 해 나무 껍질을 긁으면 수액이 밖으로 흘러나온다.

단풍이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신호라면, 고로쇠수액은 겨울에서 봄으로의 계절 변화를 의미한다. /남원=유영철 기자



황숙주 순창군수, 주민의견 수렴 마을방문 돌입

황숙주 순창군수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보다 가깝게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행보에 나섰다.

순창군은 19일 구립면을 시작으로 '2018년 새해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마을방문'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11개 읍면 마을 회관 및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진행되며 3월 9일까지 300여개 마을을 방문하는 일정이다. 군정 전반에 대해 군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새해 군정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민들이 면사무소를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황숙주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마을회관을 직접 방문해 건의 사항도 듣고 군정방향을 함께 이야기 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어드레소 보다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반영될 전망이다.

19일에는 구립면 운항 마을을 시작으로 구립면 30개 마을을 방문하는

일정으로 진행됐다. 운항마을에서는 최근 군에서 시작한 경로당 급식도우미 제도와 농어촌 버스단일요금제에 대해 많은 주민들이 만족한다는 공감을 표했으며 마을 숙원 사업들의 건의도 이어졌다.

군은 이번 마을방문이 마을을 직접 찾아가는 방문인 만큼 최대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 격 없는 대화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황숙주 군수는 "현장에서 언제나 답을 찾을 수 있다"면서 "올해 마을 방문은 어드레소 보다 더 가깝게 군민의견을 청취하고 소통을 통한 군정발전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만큼 최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귀담아 들겠다"고 말했다.

군 측은 이번 마을방문을 통해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 검토를 거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심민 임실군수, 행복한 노후생활 위한 경로당 투어

민선 6기들어 맞춤형 효심정책에 남다른 노력을 이어가고 있는 심 민 임실군수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경로당 투어에 나섰다.

심 군수는 19일 신덕면을 시작으로 내달 9일 임실읍까지 12개 읍면 경로당 60개소를 방문, 어르신들의 애로사항 청취 및 취약시설 점검에 나섰다.

심 군수는 이날 노인여가 복지시설인 신덕면 조월경로당의 4개소를 찾아 경로당을 찾은 어르신들의 손을 일일이 잡으며 안부를 물었고, 동절기 여가활동 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런 가운데 군은 올해도 다양한 어르신 맞춤형 효심정책을 추진 중이다. 어르신들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될 노인종합복지관을 내년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본격적인 건립작업에 들어갔다.

또한 어르신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경로당 시설보강작업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지난 해 343개에 달하는 전 경로당에 에어컨을 설치한 데 이어

올해에는 경로당 신축 및 기능보강과 물품구입비로 9억원을 확보, 쾌적한 노인여가시설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경로당 운영 등을 통해 경로당에서 여가를 보내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있으며, 동절기 많은 어르신들이 중식을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로당 100곳에 식사도우미를 지원 중이다.

특히 '최고의 노인복지의 일자리'라는 기조로 지난 해 노인일자리 평가에서 2관왕을 차지한 데 이어 올해도 노인일자리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심 민 군수는 "이번 경로당 방문을 통해 어르신들의 다양한 의견과 애로사항 등을 적극 수렴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어르신 모두가 편안하고 건강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는 다양한 복지사업을 확충해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매 아리

임실군 지사면 산악회 산신제 열어

임실군 지사면 산악회(회장 최기락)는 지난 18일 주민의 평안과 재외향우들의 무사안녕 및 풍요를 기원하는 산신제를 안하리 덕재산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군의회 문영두의장, 최낙진 지사면장을 비롯해 산악회 회원과 주민 등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덕재산 등산을 시작으로 산신제 소개, 산신제 봉행, 음복 및 주민화합 한마당 행사순으로 진행됐다.

안하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에서는 제례의식에 참여한 주민들에게 떡국을 제공해 지역민과 친교의 시간을 가지고 화합과 결속을 다졌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농업기술센터 월동작물 재배관리 당부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는 겨울동안 생육이 정지했던 월동작물(보리, 사료작물, 마늘, 양파 등)의 생육재생기가 도래함에 따라 추비사용과 습해방지 등의 재배관리가 필요하다고 농가에 당부했다.

생육재생기 판단은 일평균 기온이 0℃ 이상 5~7일이 지속되고, 지면에 결빙층이 없으며 보리 지상부를 절단하여 1m 이상 신초가 자라고 새뿌리의 생육이 2mm정도 자란시기를 생육 재생기가 도래한 것으로 판단하여 웃거름 주는 시기를 결정할 수 있다.

남원시는 작년 월동작물 생육재생기는 2월 14일이지만 올해는 겨울철 기온이 평년대비 2~3℃ 낮아 5~7일 정도 늦어진 2월 19일~25일로 판단되어 적기에 웃거름을 줄 것을 당부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남원시-목외광고협회 간담회

남원시는 목외광고협회와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광고문화 개선과 광고사업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간담회를 가졌다.

최근 남원시 회의실에서 개최된 간담회에서는 이환주 시장을 비롯해 목외광고협회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이영섭 목외광고협회 남원시지부장 등 관계자는 간담개선사업에 지역업체 참여와 입찰의 문제점, 현수막 게시 시설 확충 등을 건의하고, 시의 협조를 구했다.

목외광고사업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시와 협회 관계자간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성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에 의견을 함께 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순-담메타서클' 프로젝트 추진 첫 시동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조성 위해 도로점용 허가 등 합의

순창군이 순창~담양간 국도변에 메타세쿼이아 명품 가로수길 조성을 시작으로 '순-담메타서클' 프로젝트 추진에 첫 시동을 건다.

군은 최근 담양군과 익산지방국도관리청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진행하고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조성을 위해 도로점용 허가 등 인허가 절차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이에 따라 순창 강천산 군립공원 인근 팔덕면 메타세쿼이아길에서 국가 산림자산으로 지정된 담양읍 화동리 메타세쿼이아길까지 9.6km 구간을 새롭게 메타세쿼이아 가로수로 연결하는 명품관광길이 가시화 될 전망이다

다. 순창군은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3월중 메타세쿼이아 명품가로수길 조성을 착수할 계획이다. 순창군은 5억원을 투자해 950주를 식재할 계획이며 순창읍 백산리에서 담양까지 총 3.8km 구간을 새롭게 조성한다.

군 관계자는 "메타서클 프로젝트 사업은 도간 경계를 넘어 양 지역의 장점을 활용해 혁신적 관광기반을 만드는 의미 있는 사업이다"면서 "첫 시동을 알리는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순창-메타서클 프로젝트'는 전라도 1000년을 맞아 전라북도도 전라남도도 힘을 모아 시작하는 첫 사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도간 경계를 넘어 관광교류의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2020년까지 3년간 43억여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다.

담양에 조성된 8.5km 메타세쿼이아길과 순창 3.2km 중간 국도 24호선에 단절된 9.6km 구간에 메타세쿼이아길 조성 외에도 순창강천산~고추장민속마을~담양메타세쿼이아길~죽녹원~담양호를 잇는 투어버스 운영, 관광정보 공유 투어스테이션 조성은 물론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담양의 가사 문화와 순창 시조문화 등 양 지역 문화예술을 연계하는 달빛여행 등 야간프로그램도 공동운영하고 메타세쿼이아길 뷰 드라이브, 한여름 밤 꿈의 미디어 파사드 체험 등 양 지역의 장점을 융합한 다양한 관광체험 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 /순창=이양원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

